

2024년 07월 10일 28주간
맥추감사주일

제24-30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맥추감사주일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

성경말씀 사무엘상 7장 5~14절(구약p.417)

암송구절 사무엘상 7장 12하절(구약p.418)

찬 송 찬송가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본 문 이 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란 말로, 왕이 등장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정치지도자입니다. 그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다스리기 직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와 범죄를 일삼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백성을 소집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는데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우리를 발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1. 블레셋의 기습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9~10절

- 9절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하셨습니다.

보충설명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심히 부패하자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셔서 그들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사로 취임한

후 난국을 극복하고자 미스바 성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려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당황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발하심으로 응답하셨고, 블레셋이 자중지란에 빠지자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2.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보충설명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승전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는데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신앙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무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3. 그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14절

-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고 사방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보충설명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감사 기념비를 세우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블레셋에 완승합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사방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 가장 강력했는데 블레셋의 패배를 보고 이스라엘에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회복과 더불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목상 이야기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6중 추돌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손가락 8개를 잘라냈으며 얼굴은 흉측해졌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와 하나님ی 원망스러웠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를 시작하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 2개와 눈이 남아 있어 감사했습니다. 자전 에세이 「지선아 사랑해」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 유학 후 한동대 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되었고, 오늘도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눔

–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봅시다.

기도

–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선순환 속에 살게 하소서.

적용

– 하나님 앞에 각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봅시다.